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

- 시간, 공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종교교육적 대응 -

김 남 희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과학혁명, 즉 4차 산업혁명과 종교교육에 주목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이 각각 인간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감각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이 부여한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이 부딪치는 갈등양상을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 추구에 대한 문제와 감각의 극대화를 통한 내재화 문제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으로 개인화의 극복과 감각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시간, 공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종교교육적 대응은 초월성의 내재화를 위한 단초로서 자기 인식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공동체 의식 교육을 종교의례적 범주에서 고찰하였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종교의 수동적 대응을 넘어서, 종교와 과학을 해석학적 순환의 연속성에서 종교교육의 방향과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핵심주제어: 종교, 과학, 4차 산업혁명, 종교교육, 시간, 공간, 감각

* 본 연구는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신화의 시대가 있었다. 신화시대에 인간은 신들이 벌이는 다양한 사건, 즉 신화를 통해 세상의 기원이나 생성 과정을 묘사하고 세상 이치의 근원을 설명해 왔다. 당시에 신화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은유와 상징을 통해 제시했다. 또한 신화의 배후에 있는 어떻게라는 질문은 언제부터라는 질문과 연결되어 인간에게 우주와 인간 역사의 시원(始原)에 대한 우주론적 물음을 던졌다. 신화 속에는 세상과 인간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고대 세계의 삶의 근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신화의 목적은 세상과 인간 그리고 사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신화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고대의 세계관은 중세로까지 이어졌다. 신 중심적인 중세의 세계관은 항상성을 지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성, 즉 늘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우주 질서의 앞과 뒤에 창조와 종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완성되었다. 공간성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토대로 중세의 신 중심적인 우주관이 체계화되었다. 중세의 목적론적 유신론은 제1원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찰을 신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중세의 신 중심적 세계관의 축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리스도교의 연합은 이성과 종교에 대한 천착의 결과물이었다. 신앙을 전제로 하는 이성, 이성을 전제로 하는 신앙은 모두 이성을 독자적인 사고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과학적 사고를 종교적 사고에 종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의 계보를 따라 형성된 천동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인간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인간중심적인 세계관을 강조하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미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성적 사고의 자유가 대두된 것이다. 서구 유럽에 지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르네상스 운동은 과학혁명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우주 체계는 새로운 우주론을 제시했다는 점과, 사람들에게 천동설과 지동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상적 변화를 야기시켰다. 지동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밀어냄으로써 지구와 지구에 속한 것들에 대한 하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1609년에 발명된 망원경은 실제로 보는 것을 통해 우주를 형이상학적 혹은 종교적 차원의 개념에서 물리적 현실로 재탄생시켰다. 망원경을 통해 본 달과 지구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발견은 곧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설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거리를 둔 상태에서 별과 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숫자로 환산하는 작업은 우주를 의미와 분리하고 객관적인 실체로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종교와 과학의 분리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당시의 천동설과 지동설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 아니라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대립이었다.

뉴턴의 자연에 대한 기계론적 세계관,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인간 이해, 나아가 다윈의 진화론은 우주에 일으킨 변혁을 생물계로까지 확장시켰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目的因) 개념을 우주에서 완전히 삭제시켰다. 이는 목적론적중세의 세계관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었다. 즉 운명론적인 인간 이해와, 정적이고 계층적인 세계관에 대한 종언이었다. 개인의 발견과 인간의 이성인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주었으며, 이로써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종교와 과학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시기가 고대였다면, 중세는 과학이 종교의 힘에 종속된 시기였다. 반면 근대는 과학의 권위가 종교의 힘을 대체하고, 종교와 차이점을 드러낸 시기였다. 근대 이후부터 종교는 과학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과학적 세계관]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¹⁾

종교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고방식의 대립은 오늘날 더욱 심화된 듯 보인다.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은 다시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생활양식과 사고 구조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생산되는 정보와 지식이 인간의 삶에 일으킨 변화의 내용과 속도는 이전의 과학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동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과학혁명인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과학문화와 과학적 세계관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의 변화가 우리 삶의 궤모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특히 세상을 보는 눈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장에서는 과학기술이 부여한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이 부딪치는 갈등양상을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 추구에 대한 문제와 감각의 극대화를 통한 내재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시점에서 종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원적으로 탐색하는 성찰의 장이 될 것이다. 나아가 두 번째 장에서는 시간, 공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종교교육적 대응으로 초월성의 내재화를 위한 단초로서 자기 인식 교육과 자기 인식의 확장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교육을 고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종교적 대응과제가 개인화의 극복과 감각의 회복, 공동체의 강화 교육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로써 종교 본연의 고유한 역할을 잃지 않는 것이 결국 4

1) 김호경, 『종교, 과학에 말을 걸다』. (서울: 책세상, 2005), 88쪽;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하여 김호경, 위의 책; Thomas Dixon, *Science and Relig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김명주 역, 『과학과 종교』 (과주: 교유서가, 2017); 장대익 외, 『종교전쟁』(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 참조.

차 산업혁명 시기에 종교교육이 대응해야 하는 우선적 과제임을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II. 과학과 종교, 그 갈등의 관계

1.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 추구

과학과 종교는 각각의 세계관을 반영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과학기술은 이전의 과학혁명과는 다른 측면에서 종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 추구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 추구는 종교적 사유의 영역이었다. 종교는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에 대한 해석을 통해 초월성을 탐구하며, 각각의 고유한 종교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로 인하여 끊어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불교에서는 자신을 비우는 철저한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유교에서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통해 인(仁)을 실현하는 군자(君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았으며, 도교에서는 천지만물의 본체인 도(道)와의 합일을 통한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종교의 다양한 신념체계는 그 종교가 발생한 풍토(風土)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오랜 세대에 걸쳐 재해석되면서 형성되었다.

여기서 풍토(風土)란 “토지의 기후, 기상, 지질, 토질, 지형, 경관 등의 총칭”²⁾을 뜻한다. 풍토는 대상으로서의 자연현상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풍토현상은 인간이 자기를 발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추위를 느끼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 체험이지만 한편 밖에 나와 있는[ex-sistere] 자기 자신을 대(對)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적(志向的) 체험은 개인적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공통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은 기후를 단독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 지형, 경관 등과 연관하여 체험한다. 또한 풍토현상은 인간의 문화, 예술 양식 안에서 풍부한 양태(樣態)를 지니고 규정된다. 이로써 풍토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인 이중성격을 갖는 인간의 자기요해(自己了解)와 역사의 근간이 된다, 풍토와 역사 속에서 인간은 고립된 단독자가 아니라 상호교섭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개인적, 사회적 존재가 된다.³⁾

오늘날의 종교형태와 신념체계 또한 모두 각 종교가 속한 풍토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2) Watsuji Tetsuro, *Fudo, Wind und Erde* (Darmstadt: Wiss. Buchgesellschaft, 1992), S. 6.

3) Ibid., SS. 6-12 참조.

서 형성되고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각각의 고유한 풍토 속에서 자신의 유한한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게 하는 구원관을 형성시켜 나갔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풍토를 단순히 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근거로 시간적, 공간적 구조 속에서 파악했다. 시간적, 공간적 구조 속에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유한성을 풍토와 더불어 인식하고, 그 유한성을 넘어 무한의 세계를 상상했다. 여기서 유한성과 무한성의 경계선은 죽음이다. 유한성은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한계성이며, 무한성은 죽음에 대한 극복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 이전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성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극복이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라 할 수 있다.⁴⁾

각 종교의 구원관은 경전과 교리에서뿐만 아니라 건축물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괴베클리 테페(Göbekli Tepe), 스톤헨지와 같은 인류의 최초 건축물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죽음과 원초적으로 투쟁하기 위한 표현물이었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초월적 영역에 대한 갈망이 곧 종교 건축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적 건축물은 인간의 지각 방식을 변화시키고, 성스러운 우주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내세의 약속을 드러내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시키기도 하면서, 인간의 행동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⁵⁾

이렇게 인간의 유한한 시간성과 공간성을 인식하게 하던 풍토 개념이 오늘날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자기이해와 역사의 근간이 되는 자연현상 총체로서의 풍토는 현대인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인간에게 자기이해와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과 문화인 듯 보인다. 즉 21세기의 새로운 풍토는 사물인터넷으로 둘러싸인 정보 네트워크의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풍토 속에서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의 유한성을 재인식하고, 그 유한성을 극복할 무한의 세계를 새롭게 구성해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 침투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자동화와 지능화된 생산체제가 경제 구조를 급격히 혁신하는 과정이다. 20세기 후반 출현한 정보기술(IT)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 기술로서 실현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섰으며, 이제 정보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침투하여 만물을 소통시키고 조작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더 나아가 만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⁶⁾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

4) 김남희,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죽음에 대한 인식 : 풍토와 종교,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인간연구』제19호(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0), 236쪽.

5) Colin Ellard, *Place of the Heart: The Psychogeography of Everyday Life*, 문희경 역,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서울: 더퀘스트, 2016), 22-23쪽, 231-242쪽 참조.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서울: RHK, 2016), 14쪽.

종 기술들의 융합과 속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기술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융합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하나의 신 기술이 전파되는 속도 또한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빨라졌다. 현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시대에 진입해 있다.⁷⁾ 사람과 정보의 연결, 사람과 사람의 연결, 사람과 상품이 연결된 시대, 이를 마이클 린치는 “모든 것의 인터넷, 인간 인터넷”⁸⁾이라 명명하였다. 세상의 모든 생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산출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물리적 세상과 사이버 세상을 함께 연동시켜 최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실제 세계에서와 시간적 질서, 연속성, 통일성을 깨뜨리면서 동시성과 즉시성을 향해 사건 발생의 순차적 연속성을 수축시키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거리의 증발로 인해 항시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며, 물리적 공간과 같은 고정된 영토에 정착하는 존재 방식을 위협받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는 동시성과 즉시성으로 인해 영토의 공간성을 상실함으로써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가 일어난다. 탈영토화가 일어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하나의 지점이 하나의 존재자에 의해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지점이 하나의 존재자에 의해 점유될 수 있고 하나의 지점이 무수한 존재자에 의해 점유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의 존재자는 자기 동일성을 끊임 없이 다른 것에 의해 침투당하는 상황에 있게 된다. 즉 사이버 공간은 동일성과 타자성이 혼재하는 공간이 된다. 사이버 공간은 동질성의 공간이 아니라 동질성과 함께 타자성의 투입을 허용하는 섞임의 공간(Hybrid Space)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완벽한 자기경계를 할 수 없다. 인간은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존재의 틈새로 타존재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며, 동시에 타존재로 스며들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은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는 동시성과 순식간에 여기에서 저기로 유통될 수 있는 소통성을 갖고 있다.⁹⁾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 풍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를 이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러한 시간성, 공간성의 인식과 한계성의 극복의 기준은 죽음이었으며, 시간과 공간을 향한 초월성의 추구를 종교적 구원관으로 해명해왔다. 즉 종교적 관점에서 초월성의 추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었다. 즉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새로운 풍토 속에서 이미,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초월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풍토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여지는 이 곳에 없다.

7) 김정욱 외, 『2016 다보스 리포트』(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6), 21쪽.

8) Michael P. Lynch, *The Internet of Us*, 이충호 역, 『인간 인터넷』(서울: 사회평론, 2016), 267쪽.

9) 이종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희』(서울: 문예출판사, 2003), 17-25쪽 참조.

오히려 초월성 경험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감각 수용을 통해 더 강화되고 있다. 자연풍토로서의 시공간이 디지털 네트워크 풍토가 만들어낸 시공간으로 대체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 풍토는 인간 오감의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 초월성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2. 감각의 극대화를 통한 내재화

화이트헤드가 “물리과학은 인류의 감각지각에서 드러난 진리를 정확한 말로 공식화하려는 시도”¹⁰⁾라고 말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서 인간의 감각은 자연을 이해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물리적 공간 속에서 매 순간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디지털 인간(homo digicus)은 탈영토화된 사이버 공간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각을 활용한 기술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빌드 2015에서 공개된 홀로렌즈는 안경형 웨어러블 컴퓨터이자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장치인데, 디스플레이 화면의 사각 틀 밖으로 정보 환경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래픽 오브젝트를 눈앞에 나타나게 하고 가상공간의 겹(layer)을 원하는 만큼 덧씌울 수 있는 장치이다. 모니터 화면의 평면을 넘어 3차원 생활환경 전체가 디지털 유저 인터페이스로 증강되는 것이다. 홀로렌즈는 위치 파악과 물체 인식이 가능해서 손을 움직여 그래픽 오브젝트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 모터사이클의 3D 그래픽을 피규어처럼 이리저리 돌리고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실제 세상의 물체와 동기화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장치와는 확연히 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의자에 앉아 퍼즐게임을 입체로 즐길 수도 있고, 각종 전자제품의 상태를 홀로그램으로 띄워 사용할 수도 있다. 얇은 대형 텔레비전 화면을 백과사전 페이지처럼 두껍게 겹쳐 올리는 일도 가능하다.¹¹⁾

홀로렌즈 기술은 현재화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시각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성과 손가락 제스처를 통해 청각과 촉각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인간이 느끼는 감각은 실제 사물로부터 인지하는 감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의 인지를 불러일으키는 곳은 철저한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느낀다. 만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홀로렌즈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사람을 본다면 환영을 좇아 허우적거리면서 혼잣말 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10) Alfred N. Whitehead, *Religion In The Making*, 김희현 역, 『진화하는 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55쪽.

11) 임태훈, 「디지털 중세기를 탈출하기-디지털 비평」, 이영준 외,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서울 반비, 2017), 53쪽.

비취질 것이다.

인터넷이 인간의 삶을 촘촘히 에워싸면서, 현대인은 실제로 몸을 움직여 듣고, 보고, 경험하는 질적인 시간의 향유보다 검색과 다운로드를 되풀이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다. 새로운 데이터가 쉽 없이 유입되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보다는 파일을 선택하고 저장하는 속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인간 신체의 가동시간(uptime)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¹²⁾

과학기술에 의해 양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얻게 된 인간의 감각체험은 뇌의 신경망을 통해서든 외부 기억 장치를 통해서든 인간 신체의 가동시간 중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다. 막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인터넷이 송신 속도를 끊임없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은 검색→다운로드→저장→망각의 고리에 묶여 있는 것이다.¹³⁾ 게다가 수신할 인간 의식의 프로세싱도 가속되며 표준화되고 있다. 정보 메시지의 모호함과 불투명을 탐색하기보다는 접속에 최적화된 정보를 수신하여 빠른 인지 반응을 끌어내는 편을 현대인은 선호하고 있다. 끊임없이 빠르게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검색→다운로드→저장→망각이라는 프로세스는 결국 인간의 경험을 실재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체험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많은 이미지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복제와 인용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미지의 인플레이션은 그 타당성의 상실을 가져 오고 있으며, 또한 이미지의 제한 없는 소비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현대인은 종교적, 윤리적 이상보다는 이미지에 더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¹⁴⁾ 한편 아놀드 겔렌(Arnold Gehlen, 1904-1976)은 탈-역사성(post-histoire)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탈역사성이란 “그 안에서 진보가 진부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탈역사성이란 기술을 통하여 자연을 정리·정돈하는 인간의 능력은 증대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대된 정리·정돈하는 능력은 동시에 그 성취된 것들을 이제는 새롭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소비 사회에서는 새롭다는 것이 조금도 혁명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인간은 실제로 인간을 만나면서 서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네트워크로 연결된 화면에 나타난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 즉 이미지를 만나는 것이 진짜 체험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¹⁵⁾ 근대 이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

12)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시간 포획장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전 세계 사용자 수는 2016년 16억 5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한국의 월 사용자는 16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월평균 체류 시간은 아홉 시간이라고 한다. 매월 소비되는 누적 시간의 규모는 한국 사용자만으로 1만 5000년에 달한다고 한다: 위의 글, 57-58쪽 참조.

13) 만프레드 슈피처, *Digitale demenz : wie wir uns und unsere kinder um den verstand bringen*, 김세나 역, 『디지털 치매』(서울: 북로드, 2013), 122-124쪽 참조.

14) 김산춘, 『감각과 초월』(왜관: 분도출판사, 2003), 47쪽.

인간 체험의 탈역사화가 사실상 일어나고 있고, 디지털 네트워크가 치밀화되면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대상이 이미지화되고 있는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인간 존재는 실제로 점점 이미지로 변환되어 약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존재론의 해체 문제까지 야기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인간이 자신이 검색한 정보를 그 어느 지식보다도 더 가치있다고 자연스럽게 간주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특정 환경에서 정보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수용 능력을, 특히 감각을 통한 수용능력을 자동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인간의 이와 같은 사유 습관을 수용적 태도라 명명한다. 수용적 태도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수용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지식은 지성이 필요한 지식이 아니다. 즉 수용적 사고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非)성찰적이라 할 수 있다. 빠른 수용적 과정은 어떤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은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비성찰적인 인지 과정에 몰두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은 정보 속에 드러나는 메시지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반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셀름 그륀이 자신의 저서 『아래로부터의 영성』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이 신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이 어떻게 경험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곧 진정한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¹⁶⁾

진정한 자기 이해의 근거는 자신의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아가 자신의 감각을 깨우는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깨움을 통한 종교적 성찰은 곧 종교적 수행이기도 하다. 삶을 의미화 하는 인간의 사유과정은 정보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도보다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현대인은 물리적, 감정적, 문화적 시간 리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시대를 역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종교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인간의 가동시간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시간이 물질화되고 사이버 공간에 종속되어 가는 상황에서, 시간을 의식하는 현대인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시간을 의식하는 인간은 현재의 감각적 세계를 벗어나 정신적 활동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즉 현재화된 과거는 기억 혹은 회상으로, 현재화된 미래는 예측 혹은 기대로 옮길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¹⁸⁾

15) 위의 책, 36-37쪽 참조.

16) 마이클 린치, 앞의 책, 51-57쪽 참조.

17) Anselm Grün, Meinrad Dufner, *Spiritualität von Unten*, 전현호 역, 『아래로부터의 영성』(왜관: 분도출판사, 2014), 7-12쪽 참조.

18) 이원, 『시간적 인간-시계 없는 삶을 위한 인문학』(서울: 지식의 날개, 2016), 32-33쪽.

이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종교의 보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종교는 오랜 기간 전해오는 각각의 수행법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깨우기도 하지만, 한편 그 감각에 대한 부정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영원성과 초월성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이다.

Ⅲ. 시간, 공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종교교육적 대응

1. 초월성의 내재화를 위한 단초로서 자기 인식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속도는 인간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두 번째는 탈영토화되고, 탈역사화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인간은 감각의 극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탈영토화되고, 탈역사화된 새로운 지형을 우리는 오늘날 21세기형 풍토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21세기형 풍토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경험을 누리고 있다.

한편 이전과는 전혀 다른 21세기형 풍토 속에서 인간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듯 보인다. 지난 2016년 3주 동안 벌어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승리한 것은 육체적 노동만 하던 기계가 인간의 고유 영역인 지적 노동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학습하는 기계의 등장은 호모 사피엔스만의 영역이었던 지적인 노동 역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되는 순간, 지적인 노동 또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알파고의 승리는 어쩌면 그동안 경쟁자 없이 지구를 지배하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혁명과 다르다는 것은 명확하다. 즉 인간은 인간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철저히 개인화된 미래로 향하고 있다.¹⁹⁾

이처럼 더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가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풍토는 전통적인 시간적, 공간적 구조 속에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유한성과 무한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종교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즉 인간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극복하고자 종교적으

1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앞의 책, 18쪽.

로 노력했다. 이처럼, 21세기형 풍토 속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유한성의 극복을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종교적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가 해야 할 사명이다.

개인화를 심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풍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에 대한 성찰적 자기 인식이다. 마이클 린치는 인간이 인간 인터넷으로 살아갈 때, 많은 정보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에 취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²⁰⁾ 이는 한 사회 안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반성적 능력, 즉 스스로 반성을 통해 지지할 수 있는 원칙들로부터 나오는 근거 능력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의 뇌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는 뇌가 해석을 한다는 것이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실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믿음이나 지각, 느낌이나 기억 등도 착시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착시 현상은 오감이 전달해준 정보에 인간이 경험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²¹⁾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경험에 비추어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고유 능력은 직관을 통한 통찰이라 할 수 있다. 보이는 것, 그 너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찰(Insight)이다.

이처럼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시간 의식이 필요하다. 인간은 광속의 디지털 파도를 타고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에게는 유한한 몸이 있고, 최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세 가지 시간 의식의 차원인 기억(retentio)과 주시(intentio)와 기대(protentio)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만나야 할 것이다.²²⁾

나는 만년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새로운 자신과 만났다. 청년기에 조금 시를 쓸 수 있었으나 그 후로는 그만두고 말았다. 육십 대에 들어서 다시 시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십오 년간 네 권의 시집을 냈다. 나는 소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에게 웃음을 산 후 결코 붓을 쥐어 본 적이 없었다. 오십 대 후반에 들어서 문득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몇 화랑 주인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스무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만년에 이르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이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었다. 옛 자신이 놀란 눈으로 새로운 나를 보고 있고, “자네 정말 인가?” 하고 중얼거려 보기도 한다. 나는 십 년 전부터 신슈의 이나타니에 살고 있다. 도쿄 변화가에서 자란 몸이 자연에 둘러싸인 촌에서 혼자 지내다 또 다른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가령 해 질 녘 논둑길을 홀로 걸어 돌아올 때 새로운 자신을 보고 있는 옛 자신을 느낀다. 이러한 놀

20) 마이클 린치, 앞의 책, 69쪽.

21) 김대식, 『인간 vs 기계』(서울: 동아시아, 2016) 97쪽.

22) 김산춘, 앞의 책, 51쪽.

람의 자각이 이곳에서 시와 그림으로 엮어지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새로운 자신과 계속해서 만나는 일이다.²³⁾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서 가장 인간다운 통찰은, 가지마 쇼조라는 일본 시인이 쓴 글처럼, 인간이 유한성을 극복하고 초월로 귀환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기 내면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학적 자기반성이 전제될 때,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초월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질 때, 초월성의 내재화가 가능하다. 이종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존재의 신비, 결코 끝까지 밝혀질 수 없는 그 빛 속의 감춤, 그 유혹적인 진리의 춤이 머무를 수 있는 숲 속의 빈터, 그것을 비워놓아야 한다.”²⁴⁾ 그 빈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술이며, 미학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기인식이라 할 수 있다. 발타살은 육체적 감각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육체적 감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변화되어 가는 감각을 영적인 감각이라 명명하였다. 영적인 감각은 인간이 실제로 체험하는 감각과 영혼, 이 양극을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영광』(Herrlichkeit)²⁵⁾에서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지성과 의지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또한 지녀야 함을 강조하였다.²⁶⁾

이처럼 초월성의 내재화를 위한 단초는 감각을 통한 자기 인식을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자신을 향한 통찰은 곧 초월성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종교는 즉각적인 사물들의 덧없는 흐름 너머와 그 뒤 그리고 그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무언가에 대한 통찰이다. [종교는] 실제적이면서도 여전히 현실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머나먼 가능성이지만 현존하는 사실들 중 가장 위대한 무언가, 사라져 가는 모든 것에 의미를 주지만 이해하기는 힘든 무언가, 궁극적인 선을 갖고 있지만 끝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 궁극적 이상이지만 끝내 얻을 수는 없는 무언가에 대한 통찰[이다].”²⁷⁾

화이트헤드가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종교적 통찰은 인간의 관념적인 사색보다는 종교적 수련과 헌신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각 종교적 수련전통에서는 케노시스(kenosis, 자기비움), 관조, 수용, 현명한 수동성 등이 강조된다.²⁸⁾ 이러한 종교적 수

23) 김산춘, 위의 책, 53쪽.

24) 이종관, 앞의 책, 7-8쪽 참조.

25) 한스 우루스 폰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은 자신의 신학적 미학을 미(美)적 관점에서 『영광』(Herrlichkeit)을, 선(善)의 관점에서 『신적-드라마』(Theodramatik) 그리고 진(眞)의 관점에서 『신적-논리학』(Theologik), 3부작을 통해 체계화시켰다. 그는 이러한 신학적 체계가 형이상학(meta-physics)이 아닌 인이상학(meta-anthropologia)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산춘, 「발타살과 신학적 미학의 구상」, 『미학·예술학 연구』9 (서울: 한국미학예술학회, 1999), 110-112쪽 참조.

26) 김산춘, 「신학적 미학과 그리스도교 예술」, 『미학·예술학 연구』28 (서울: 한국미학예술학회, 2008), 314-317쪽 참조.

27)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191-192쪽; John F. Haught, *Deeper than Darwin*, 김윤성 역, 『다윈 안의 신』(서울: 지식의숲, 2005), 312쪽에서 재인용.

련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실존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개인화를 심화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풍토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간성과 공간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각각의 새로운 현재 안에 깃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기 인식의 확장, 공동체 의식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지배적인 상호작용의 양식은 접속에서 접속으로 이동했다. 미디어 이론가이자 사회비평가인 비포는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에서 “공간이 아닌 공간, 시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비특이화된 신체들의 통합”²⁹⁾을 접속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접속은 0과 1로 구성된 전자적 펄스로 이뤄진다. 이 시공간에선 비트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호환이 불가능하다. 코드들의 통사 구조 혹은 운영체제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접속은 성립될 수조차 없다. 반대로 접속이란 신체들 사이의 특이하고 반복 가능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따라서 접속을 위해 상대가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올바른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적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똑같은 메시지라도 신호의 맥락이나, 분위기,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면밀하게 추적해야 한다.³⁰⁾

인간의 삶은 신경망에서 번쩍거리는 전기 화학적 작용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인간은 접속이 아닌 접속을 하면서 사회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나와 타인이 함께하는 공공의 장소를 사회 곳곳에 구성하고, 그곳에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시공간을 생산해내야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자기 인식과 함께 자기 인식 확장으로서의 공동체 구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과학의 역사에 비해 종교가 오랜 기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 밖에서 종교의 고유한 특징을 관찰한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에서 정작 종교인이 잠시 잊어 온 종교적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상실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통렬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의 상실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예전에만 해도 이웃의 정(情)이란 것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무자비한 익명성(匿名性)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

28) Karen Amstrong, *The case for God*, 정준형 역, 『신을 위한 변론』(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482-483쪽 참조.

29) 임태훈, 「디지털 중세기를 탈출하기-디지털 비평」, 이영준 외, 앞의 책, 61쪽.

30) Franco Berardi Bifo, *Precarious rhapsody : semicapitalism and the pathologies of the post-alpha generation*, 정유리 역,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서울: 난장, 2013); 임태훈, 위의 책, 61-62쪽에서 재인용.

에서 말하는 무자비한 익명성이란,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목적, 즉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상승이나, 또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상태를 말한다.³¹⁾ (...)

더 나아가 알랭 드 보통은 종교가 종파에 제한된 종교적 공동체를 넘어서 타종교인 그리고 타인과의 연계성까지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종교는 우리의 고독에 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 비록 내세라든지 그 교리의 초자연적 기원에 관해서 종교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거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는 요소에 관한 종교의 이해를,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두 가지 편견을 녹여 없애려는 종교의 노력을 존중한다.³²⁾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학적 미학에 토대를 둔 자기 인식 교육과 함께 의례를 통한 종교적 공동체 교육 또한 지향해야 할 것이다. 개인화가 심화되어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교적 공동체 교육은 인간 관계성의 회복을 시켜주며, 인간소외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내놓은 미래고용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감하는 것 외에 WEF 미래고용보고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 기술격차에 따른 근로자 간 양극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층 간 불평등과 함께 세대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³⁾

이러한 전망 속에서 정작 간과되고 있는 점은 인간의 노동 가치와 시간과의 관계성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 따른 대응으로 공유경제론이 주목을 받으면서,³⁴⁾ 노동자는 스스로 자기 삶의 경영에 새로운 공유경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유경제론이 진정으로 협력적 공유사회를 위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특히 공유경제 안에서도 인간의 시간이 조각으로 매매되고, 재조립되면서, 노동자의 노동은 단편적인 세포 단위의 시간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게 부채가 가중되고 고용 안정성이 악화될수록 노동자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일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시간 가치는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더욱 교환가치로 취급되어질 것이다. 비록 전통적 시간관이 해체

31) Alain de Botton, *Religion for Atheists : A non-believers guide to the use of religion*, 박중서 역,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서울: 청미래, 2011), 23쪽.

32) 위의 책, 31쪽.

33) 김정욱 외, 앞의 책, 57-60쪽 참조.

34) 이상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윤이 외, 『빅피쳐 2017』(서울: 생각정원, 2016), 224-235쪽 참조.

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시간은 인간적 존엄의 지표여야 하고, 사회적 연대, 믿음,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³⁵⁾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존엄한 삶에, 자신이 가치를 두는 삶의 양식에 집중한 수 있는 시간과 공간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이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각각의 조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같은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은 인간 노동의 가치가 소외되어져 가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각 종교의례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의례는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을 살아가는 인터넷 인간에게 사이버 공간이 아닌 성전(聖殿)이라는 공간성을 통해 공동체를 확인시키게 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시간성] 의례에 참여하면서 초월성 앞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성스러운 장(場)이 될 수 있다. 무신론자인 알랭 드 보통 또한 공동체 정신을 종교에서, 특히 가톨릭에서 어떻게 고양시키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은 우선 장소를 이용해서 공동체 정신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장소는 비록 지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그 바깥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와는 다르다고 선언한다. (...) 교회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확립한 그 대단한 위신과 학문과 건축적 장엄함을 우리에게 빌려줌으로써,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고 싶은 우리의 수줍은 욕망을 실현시켜준다. 교회의 구성원 역시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 오히려 이들은 무작위로 추출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가치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가 된 것뿐이다. (...) 미사 중에 가난, 슬픔, 실패, 상실 등에 관한 언급이 그토록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 우리 자신 중에서도 가급적 부정하고 싶은 측면들의 상징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시인할 경우, 우리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필요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셈이 될 것이다.”³⁶⁾

인터넷 인간에게 종교적 공동체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 속에서, Labyrinth라는 온라인 영적 순례 프로그램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Labyrinth(迷路)는 중세 성당의 바닥에 그려진 도형이다. 원래 이 미로는 신자들이 이 도형 안으로 들어와 복잡하게 연결된 라인 위를 따라 걸으면서 기도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순례 Labyrinth(<http://www.labyrinth.org.uk>)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자기 성찰적 도안을 사이버 공간에 프로그램으로 구축한 것이다. 11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온라인 Labyrinth에서는 단계별

35) 임태훈, 「디지털 중세기를 탈출하기-디지털 비평」, 이영준 외, 앞의 책, 35-36쪽 참조.

36) Alain de Botton, 위의 책, 31-37쪽.

로 여성의 목소리로 멘트가 흘러나온다. 온라인 미로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한 여성이 당신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눈을 크게 뜨고 감각을 이용할 것, 이것은 감각이 결여된 여행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가면을 벗고 껍질들을 벗고... 성장하고, 당신의 내면을 하느님과의 만남에 준비할 것도 요청한다. 이 온라인 미로에 대해 우혜란은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첨단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결코 죽은 공간이 아니며 참가자가 이곳에 몰두하는 동안 여러 감각이 활성화되어 이 공간을 사실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이곳에서 얻는 체험도 매우 구체적”³⁷⁾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미로순례가 과연 충분히 공간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의례에서 인간의 감각활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감각활용을 성찰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순례가 현대인들에게 진정 성찰적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순례에서 발견되는 순례자들 간의 평등한 공동체성이 사이버 순례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여전히 각자, 홀로 영성적 깨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찰적 자기 인식이 공동체성으로 확장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접속이 아닌 결속으로서의 인간은 종교적 의례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례는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 소리, 침묵, 움직임 등을 포함하는 비언어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 초월적 실재에 대한 내적 경험을 하게 해 준다. 또한 의례를 통해 드러난 상징은 인간에게 몸의 감각을 요구하며, 의례 참여자들에게 듣고,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초월성을 향하게 한다.³⁸⁾ 이는 단순히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감각적 경험이 아니다. 나아가 인간은 개인적인 아픔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재 조건으로서의 고통을 초월성이 현현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안으로 승화되어 간다. 인간 존재의 고통에 대한 감정은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을 나누는 종교 의식은 곧 공동의 행위가 된다.³⁹⁾

발타살 또한 자신의 저서 『신적-드라마』(Theodramatik)에서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행위로서 신학의 공공성(publicity)을 강조하였다. 인간에게 신적 아름다움인 하느님을 통한 존재론적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지금, 여기, 세계 무대(world stage)를 살아가는 인간 배우(human actors)들에게 실존적 구원을 위한 참여와 역할이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⁴⁰⁾

37) 우혜란, 「사이버 의례, 새로운 종교적 실험인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진구 편지),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과주: 들녘, 2016), 182-183쪽.

38) 박종환, 『예배미학』(서울: 동연, 2014), 132쪽.

39) 위의 책, 12-16쪽 참조.

40)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발타살에게 종교가 부여하는 공동체적 경험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인간으로부터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모험으로서의 탈아(脫我, ek-stasis)라고 할 수 있다.⁴¹⁾ 여기에서 탈아는 곧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근원적으로 지향해야 할 자기 인식의 확장인 것이다. 즉 탈아는 인간 관계성의 회복시켜주며, 인간소외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기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탈아는 개인을 공동체와 결합하게 하고 공공성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공동체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의례는 지금까지 고찰한 총체적인 만남의 장이자, 유한성을 극복하고 초월성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나누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의례는 곧 만남의 장이고 나눔의 장이기 때문이다. 의례를 통한 공동체의식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되어가는 인간존재의 존엄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인간 노동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IV. 나오며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문명사가들은 21세기를 문명사적으로 대변환의 시대라고 한다. 현대사회는 300년 전의 산업혁명에서 경험했던 사회구조나 생활양식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의 양이나 질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제 4차 산업의 정보와 지식은 이제까지의 어떤 것보다 다르다. 이 지식과 기술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것으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산업·정치·경제면에서 인류를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로 이끌어 갈 것이다.

기존의 틀을 흔드는 게임체인저와 같은 변화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과학기술이 기존의 종교적 세계관에 끼치게 될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이 부여한 세계관과 종교적 세계관이 부딪치는 갈등양상을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성 추구에 대한 문제와 감각의 극대화를 통한 내재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이 일상에서 종래의 공간개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는 과정과 함께 인간의 시야의 확대에 따른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종교가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종교가 고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이 개인화의 극복과 감각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강화라고 보았다.

로」(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19-122쪽 참조.

41) 김산준, 「발타살과 신학적 미학의 구상」, 118-119쪽 참조.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시간, 공간 그리고 감각에 대한 종교교육적 대응은 초월성의 내재화를 위한 단초로서 자기 인식에 대한 종교교육적 중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또한 자기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공동체 의식 교육을 종교의례적 범주에서 고찰하였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는 종교의 수동적 태도를 넘어서, 종교와 과학을 해석학적 순환의 연속성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통 관계 속에서 배태된 질문은 새로운 인간 이해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어떻게를 과학적 질문으로, 왜를 종교적 질문으로 분리함으로써 과학과 종교의 차이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컴퓨터 사고를 습득하여 새롭게 융합하고 조합할 수 있는 기초 역량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딥러닝을 하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전망하는 이야기들도 범람하고 있다. 강한 인공 지능이 생긴다면 그 기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어떤 현상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게 하는 것이다.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기술적 습득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컴퓨터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데 있다. 이것은 기계적 사고, 소통방식과 차별화된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응하는 종교의 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종교교육의 방향설정 또한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 서울: 알에 이치코리아, 2016.
- 그레이엄 클라크, 정기문 역,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 서울: 푸른길, 2011.
- 김남희,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죽음에 대한 인식 : 풍토와 종교, 그리스도교 와 불교를 중심으로」 『인간연구』제19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 구소, 2010.
- 김대식,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아시아, 2016.
- 김산춘, 『감각과 초월』,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김산춘, 「신학적 미학과 그리스도교 예술」, 『미학·예술학 연구』28 (서울: 한 국미학예술학회, 2008),
- 김산춘, 「발타살과 신학적 미학의 구상」, 『미학·예술학 연구』9 (서울: 한국 미학예술학회, 1999).
- 김윤이 외, 『빅 픽처 2017』, 서울: 생각정원, 2016.
- 김정욱 외, 『2016 다보스 리포트』,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6.
- 김호경, 『종교, 과학에 말을 걸다』, 서울: 책세상, 2005.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백옥인 역, 『디지털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니콜라스 카, 최지향 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 2016.
- 로널드 드워킨, 김성훈 역, 『신이 사라진 세상』, 블루엘리펀트, 2014.
- 마거릿 버트하임, 『공간의 역사』, 생각의 나무, 2002.
- 마리오 부리가드·데니스 오리ერი, 김영희 역, 『신은 너 속에 갇히지 않는 다』, 21세기북스, 2010.
- 마이클 린치, 이충호 역, 『인간인터넷』, 사회평론, 2016.
- 만프레드 슈피처, 김세나 역, 『디지털 치매』, 서울: 북로드, 2013.
- 박종환, 『예배미학』, 서울: 동연, 2014.
-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한스 우르스 폰 발타 살의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스티븐 핑커 외, 이한음 역, 『마음의 과학』, 와이즈베리, 2016.
- 안셀름 그린, 전현호 역, 『아래로부터의 영성』, 왜관: 분도출판사, 2014.
- 알랭 드 보통, 박중서 역,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서울: 청미래, 2011.
- 알프레드 N. 화이트헤드, 김희현 역, 『진화하는 종교 - 화이트헤드의 종교 론』, 대한기독교서회, 2012.
- 우에다 노리유키, 양억관 역, 『종교의 위기』, 푸른숲, 1999.
- 우혜란, 「사이버 의례, 새로운 종교적 실험인가?」,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진구 편저), 『우리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파주: 들녘, 2016.
- 이상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윤이 외, 『빅픽처 2017』, 서울: 생각정원, 2016.
- 이원, 『시간적 인간-시계 없는 삶을 위한 인문학』, 서울: 지식의 날개, 2016.
- 이종관,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흥』, 서울: 문예출판사, 2003.

임태훈, 「디지털 중세기를 탈출하기-디지털 비평」, 이영준 외,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서울: 반비, 2017.

장대익 외, 『종교전쟁』,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9.

존 호트, *Deeper than Darwin*, 김윤성 역, 『다윈 안의 신』, 서울: 지식의숲, 2005.

카렌 암스트롱, 정준형 역, 『신을 위한 변론』,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콜린 엘러드, 문희경 역,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서울: 더퀘스트, 2016.

크리스천 리더, 이가영 역,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서울: 다룬, 2015.

토머스 딕슨, 김명주 역, 『과학과 종교』, 파주: 교유서가, 2017.

피터 노왁, 김유미 역, 『HUMANS 3.0』, 서울: 새로운현재, 2015.

하비 콕스, 김창락 역, 『종교의 미래』, 서울: 문예출판사, 2010.

Watsuji Tetsuro, 『Fudo, Wind und Erde』, Darmstadt: Wiss. Buchgesellschaft, 1992.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21일 심사일: 2017년 7월 11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2일

연구자소개: 김남희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영성교육, 가톨릭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 신종교, 동학(천도교)

③ 주요논저: 「글로벌리즘을 향한 가톨릭 종교 교과서 개발」, 「새로운 복음화와 가톨릭 학교교육의 향방(向方)」,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 교육 방법론 연구: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천인관계로 살펴본 천도교 영성의 의미와 성격」, 「천도교 영성의 드러남과 나눔, 덕(德)과 동덕(同德) -천도교 영성 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구원의 유형 연구」

④ E-mail: namikisb@catholic.ac.kr

Abstract

**The Direction of a Religiou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Necessity:
The Religious Educational Response towards
Time, Space and Sense**

Nam-Hui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a new scientific revolution of this period of time. While raising the fundamental issue on where the direction of a religious education is heading to in the worl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research also explores the impact of religious world view and scientific world view towards the human life in temporal, spatial and sensual perspectives. The aspect of conflict between science technology world view and religious world view is separated into the pursuit of transcendenc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and The internalization through the maximization of sense. Furthermore this research reinforces the aim of religious education as recovering individualization, restoring senses and reinforcing the community spirit. The religious educational response towards time, space and sense resides in the self awareness of which could be the beginning of the internalization of transcendence. Also this research considers the education of community spirit for the expanse of self awareness within the religious ceremonial category. Consequent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direction of a religious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ity of analytical cycle of religion and science and its necessity, beyond the reactive response of relig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 words: Religion, Sci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ligious Education, Time, Space, Sense